

## 영국, 녹색연료 개발로 농가소득 향상

“우리는 이것에서 기름을 추출합니다.” 폴 템플(Paul Temple) 씨가 가까운 식물에서 엄지 손가락 크기 만한 평지 꼬투리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였다. “이 조그만 식물이 바로 우리의 미래지요.”

템플 씨는 약 40ha의 농지에 평지씨를 재배한다. 템플 씨는, 전통적으로는 요리용 기름으로 재배되던 이 작물이 이제는 탄소연료의 대안 연료로서, 정부가 적극 지원만 한다면 생산에서 호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여러 국가에서 평지씨는 디젤의 대체에너지인 바이오디젤(biodiesel)로서 연구되고 있다.

“이제 농업에서도 토지를 벗어난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북부 잉글랜드 작물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는 말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노력에 활력을 주는 것이 바로 영국 정부이다. 현재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제시한 연료계획에 대해서 7월 1일까지 회답해야만 한다. EU의 계획은 내년까지 직접적인 생명연료(biofuel)를 전체 연료의 2%까지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는 생산비중을 5.75%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생명연료의 가장 일반적 형태는 식물성 기름이다. 이런 기름은 디젤이나, 가솔린, 밀 혹은 설탕에서 추출한 에탄올과 혼합 가능하다.

영국 전국농민조합의 토지 고문인 폴 이보트(Paul Ibbott) 씨는 바이오디

젤이 에탄올보다 만들기 쉽기 때문에 영국의 증가하는 생명연료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영국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은 평지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평지씨는 수입 야자나 콩기름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소규모 농가가 최근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처럼 공급이 제한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황금 들판(평지씨)이 확대되기 전에 정부는 관련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분석가들은 영국이 EU가 제시한 “직접적인” 보조라는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바이오디젤 가격과 농업보조에 관한 정치적 사항의 민감성 때문에 누군가 이런 비용을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인다.

최근 농민들은 공동농업정책(CAP)에 의해 1ha당 약 260파운드(450달러)를 보조받았다. 이 금액은 바이오디젤 1리터 당 10펜스 이상을 보조하는 것과 맞먹는 것으로, 작황이 좋지 않은 해에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생명연료를 구입할 때 리터 당 20펜스의 세금 환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정책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바이오디젤은 일반 디젤보다 리터 당 약 20펜스의 생산비용이 더 들고, 시장에서도 기대만큼의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테스코의 슈퍼마켓 체인은 남동부 잉글랜드에 있는 21개 지점에서 바이오디젤을 5% 포함한 혼합연료를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연료는 영국독립녹색에너지(British independent Greenergy)에서 발명한 것으로, 일반 디젤보다 리터당 1~2센트 더 가격이 비싸다.

이것은 정부가 ‘재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대한 의무’를 시행하기로 결정

했을 때 소비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략적인 가격이다.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에게 연간 생산물 중 생명연료를 포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그린에너지(Greenergy)위원회 위원장인 알렉스 루이스(Alex Lewis)는 말하고 있다. “이런 연료는 ‘녹색’ 소비자들을 만나야만 비로소 판로가 생기는 거예요.”라고 루이스는 덧붙여 말한다.

그린에너지에서 사용하는 평지씨 기름은 프랑스와 독일에서 생산된 것이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곧, 2006년 2월까지 연간 10만 톤 규모의 영국산 평지씨를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템플 씨 농가에서 약 50km 떨어진 험버강 어귀에는 정제소와 정제한 평지씨 기름을 유럽 대륙에 수출하기 위한 항만 시설이 위치한다. 그리고 이곳은 기업을 위한 새로운 거래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농민들을 보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경영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루이스는 말한다.

그러나 지역농민들은 2010년까지 3배로 뛰어오르는 바이오디젤 수요를 만족시키기 충분한 평지씨를 생산했을 경우에는 바이오디젤 혼합연료에 대해서 리터당 2펜스 이상의 보조를 원하고 있다.

“밀은 이제까지 경작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템플 씨가 이어서 말했다. “그러나 평지씨는 운작을 할 때, 6년이 지나야 가치가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평지씨의 이윤가능성은 새로운 유럽의 농업정책이 소개되면서 더욱 떨어졌다. 새로운 유럽 농업 정책은 그들이 생산하는 양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땅을 경작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조를 해준다.

이보트 씨는 이 경우 보조 총액은 현재보다 약 15% 이상이 감소할 것이

라고 말한다. 그리고 생명연료 작물에 대한 ‘에너지 신용대부’도 ha당 45유로(53달러) 선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지씨를 재배하면 적절한 시장 가격은 받을 수 있겠지만, 시장가격과 보조금을 더한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보트 씨의 말이다.

현재 영국 농민들은 식용 평지씨 기름에 대해서는 톤 당 약 200파운드의 보조를, 산업용에는 톤 당 140파운드의 보조를 받고 있다. 이런 산업용 작물 재배는 농부들이 사용 중지로 휴경 중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U는 새로운 농업 체제 아래에서는 현재 5%를 차지하는 휴경지를 10%까지 늘리도록 요구한다.

“정부는 세금으로 얻는 재정 수입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연료에 대해서 좀 더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방침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라고 한 분석가는 지적한다.

템플 씨는 관료주의가 아주 기초적 문제부터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알맞은 태양과 비옥한 토지, 완벽한 정제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평지씨를 심지 않고 수출해야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료: 로이터통신  
(유찬희 rule-des@orgio.net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